

# 물가상승률 두 달 연속 0%대

### 채소 가격 안정세로... 하반기 국제유가 인상으로 지속 어려울듯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두 달째 0%대에 머물렀다. 배추, 무 등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채소값이 출하량 증가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잡히면서 물가상승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 1.3%, 3월 1.0%, 4월 1.0%로 1%대를 나타내다가 5월 0.8%로 떨어진 뒤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했다. 상승세를 유지하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농축수산물은 올 들어 1월 2.4%, 2월 5.6%, 3월 5.4%, 4월 5.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5월 1.3%로 한 풀 꺾인 후 6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쇠고기(18.9%), 마늘(57.1%), 계(38.7%), 오이(15.1%), 바나나(9.9%) 등을 제외한 쌀(-9.7%), 달걀(-13.3%),

돼지고기(-3.1%), 파(-21.8%), 토마토(-19.9%), 참외(-18.8%) 등은 떨어졌다.

우유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올랐지만 그 동안 가격이 높게 형성됐었던 무, 배추, 파 등은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저유가 영향으로 공업제품(-0.4%)과 전기·수도·가스(-6.5%)도 하락했다.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전세(3.7%)와 월세(0.3%) 가격 상승으로 집세가 2.6% 올랐고 시내버스료(9.6%), 하수도료(18.4%), 전철료(15.2%) 등이 오르면서 공공서비스가 2.1%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비(4.0%)와 주차(의식)가 오르면서 2.2%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교통(1.7%), 가정용품·가사서비스(0.8%), 주택·수도·전기·연료(0.2%), 음식·숙박(0.1%) 등은 상승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1.2%), 오락·문화(-1.0%) 등은 하락했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142개 품목

을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식품이 0.6% 하락했지만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가 0.1%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한 달 전보다 6.5%나 떨어졌다. 마늘, 생강 등을 포함한 기타신선식품이 2.2% 오른 것 이외에는 신선어개(-0.5%), 신선채소(-15.3%), 신선과일(-2.8%)이 모두 내렸다.

우 과장은 "하반기 국제유가 인상으로 출하가 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 저장분을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하다보니 가격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물가상승세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식유류 하락 폭이 축소됐지만 농축수산물이 하락세로 전환하며 체감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하방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진수 기자



서울섬머세일 서울 최대의 쇼핑관광 축제 2016 서울섬머세일(Seoul Summer Sale)이 개최된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쇼핑을 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 무용론' 확산

### 지원 정책들 체감 못해

"중기청이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만큼 와닿는 부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인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A 대표는 "지난달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청의 역할과 정책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변한 중소기업청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기청 본연의 역할은 사라진지 오래고, 되레 중소기업 육성 취지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심자어는 중소기업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청 무용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같은 실정 탓에 중기청에 대한 불만을 곳곳에서 터뜨리고 있다. 실제 뉴시스가 일선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현 상황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중기 대표들은 중기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 B 대표는 "지원이 있어도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중기청은 지원책을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홍보 및 소개에도 좀 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즉, 중기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는 데 반해 그 실효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기청의 차등적 지원으로 인해 성장단계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크다는 불만도 있었다.

중소기업 C 대표는 "중기청이 진행하는 초기 스타트업 지원은 취지는 좋지만 밑바닥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아닌가 모르겠다"며 "차라리 어느정도 자리잡은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면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한국지엠, 상반기 8만6779대 판매 최고 실적 기록

한국지엠주식회사는 올해 상반기 내수 시장에서 총 8만6779대를 판매해 회사 출범 이래 상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총 누적 판매 대수는 총 30만7512대를 기록해 0.1% 감소했다. 내수 판매는 21.6% 증가했지만, 수출이 2만 0733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다.

지난 6월 한달 동안 한국지엠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5만5077대 판매를 기록했다.

내수는 47.6% 증가한 1만8058대, 수출은 13.8% 감소한 3만8709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쉐보레 스파크와 말리부 판매 상승에 힘입어 회사 출범 이래 최대 6월 실적이자 올해 월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스파크는 전년 동월 대비 27.3% 증가한 5648대를 기록했다. 말리부는 360.2% 성장한 6310대를 판매해 지난 2011년10월 국내 시장 출시 이후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다.

RV 판매가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트랙스는 13.5% 증가한 1086대가 팔렸다. 울란도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1500대 판매를 돌파했다.

데일 쉐리번 한국지엠 영업·A/S·마케팅부문 부사장은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회사 출범 이래 가장 좋은 내수판매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볼트, 카마로SS 등 신차 출시로 이런 상승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전북은행, 완주 운주면에 희망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완주군 운주면에 위치한 운주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44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운주지역아동센터는 운주면 일대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학습 및 저녁식사 등으로 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도록 공부방이 10년 넘게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 완주군점지점(지점장 박소

울) 직원들은 직접 가구 등을 나르며 공부방 조성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향후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해 아동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운주지역아동센터 최금성 센터장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환경 등으로 방과 후 우리 센터를 찾는 아이들에게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맑게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해태제과 9개 제품 가격 인상

해태제과가 자일리톨검 등 9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2% 인상했다.

1일 해태제과에 따르면 ▲자일리톨검 20%(5000원→6000원) ▲아이비 5.3%(3800원→4000원) ▲후렌치파이 8.3%(1200원→1300원) ▲에이스 7.1%(1400원→1500원) ▲구운감자 6.7%(1500원→1600원) ▲쭈쭈짜보 12.5%(800원→900원) ▲연양봉 5.9%(850원→900원) ▲자유시간 25%(800원→1000원) 등의 가격이 인상됐다. /인진수 기자

## 미안마 농축산 장관 새만금 현장 방문

미안마 아용 푸 농업축산관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새만금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한농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박종대 단장은 홍보관에서 새만금 주요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대규모농업회사 부지 연내 조성 등 첨단농업 시설들을 통해 6차 산업의 미래 농업 공간을 갖춰가고 있는 농생명 융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용 푸 장관은 "농업은 미안마 국내총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수

출의 24%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생명융지의 개발계획과 정부 투자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신시33센터로 자리를 옮겨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의 축조과정을 시찰하고 새만금 내측의 예·경보 등으로 각종 재해 방지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 등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다. /김제=곽노태기자

## 전북은행 최대 80% 환율우대 여름방학 전환 이벤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여름방학 및 휴가 시즌을 맞이해 증가하는 해외여행고객을 위해 최대 80%까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뉴SMART 여름방학 환전 이벤트'를 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개인고객이 전북은행의 뉴스마트뱅킹을 이용해서 미화 100불이상 환전(외화 구매) 신청하면 미국 달러화(USD), 일본 엔화(JPY), 유럽연합 유로화(EUR) 통화에 대하여 80% (단, 중국 위안화(CNY)는 40%)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북은행 인터넷뱅킹 및 창구에서 환전시에도 우대 조건에 따라 기본 50%에서 최대 80%까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tbkank.co.kr](http://www.tbkan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수 기자

## 농협 창립 55주년 비전선포식

농협중앙회는 1일 서울 중구 새문인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창립 제 55주년 기념식 및 범농협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창립 제55주년 기념식에서는 농협현장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한 농업인과 협동조합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정부 훈·포장과 회장표창이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비전 선포식에서는 농협이 추구할 비전으로 '농업인의 행복을 위한 농협'을 발표하고, 농협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기준으로 ▲깨어있는 농협인(農心) ▲활짝 웃는 농협인(現場) ▲함께하는 국민(共感) 등 3대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새로운 농협 비전은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해 온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농협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핵심가치에는 ▲10만 임직원이 농심(農心)을 품고 협동조합 아픔을 가슴 깊이 새겨 농업인과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깨어있는 임직원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농민 속으로 다가가는 현장경험을 실천하여 농업인의 행복까지 실현 ▲농업인과 임직원간, 계통간, 농축협간, 국민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상상 발전하여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농협 구현의 염원이 담겨 있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